

심층 인터뷰를 통한 대학생들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만족도 연구

- 광고홍보 관련 이론 및 실습 수업을 중심으로

엄남현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교수

Study on Synchronous Online Learning through In-depth Interview with College Students

- Centering Around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Courses

Namhyun Um
Professor, School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Hongi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수업 만족과 불만족 요인들은 무엇이고, 이론수업과 실습수업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심층 인터뷰 결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이동시간을 줄이고 장소에 제약 없이 수강 할 수 있는 편의성, 비용 절약, 그리고 코로나 19 전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불만족 또는 단점으로 시스템의 불안정성, 학습자와 교수자와의 상호 인터랙션 부족, 수업 집중력에 방해,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 불가능, 수업의 질적 저하, 시험 공정성 유지의 어려움 등을 언급했다.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한 이론 및 실습 수업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론수업은 일방향적 강의가 주된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에는 적합하지만, 상호 인터랙션과 실시간 피드백이 중요한 실습수업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온라인 수업, 코로나 19, 인터랙션, 만족도, 이론수업, 실습수업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what factors influence college students' synchronous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and what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exist when it comes to taking synchronous online learning courses. In-depth interview results suggest that advantages of synchronous online learning are convenience (no need for travel, no limitation for study place), saving money, and no worry for contracting Corona 19. However, disadvantages of synchronous online learning are instability of online learning system, lack of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and educators, difficulty of instant communication, low education quality, and unfairness of exams. This study found that college students taking synchronous online course think that synchronous online learning is more appropriate for theory-based course than practice-based courses in that theory-based courses are lecture-oriented while practice-based courses require interactivity between learners and educators. This study provides educators a baseline understanding on how college students think over synchronous online learning and how to enhance students' satisfaction with synchronous online learning.

Key Words : online learning, Corona 19, interaction, satisfaction, theory course, practice course

*Corresponding Author : Namhyun Um(goldmund@hongik.ac.kr)

Received February 16, 2021
Accepted May 20, 2021

Revised March 31, 2021
Published May 28, 2021

1. 서론

코로나 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써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 초등학교를 비롯해 대학교에 이르기 까지 봄학기 개강이 미뤄졌으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강이 이뤄졌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대학교에서는 2020년 1학기 수업을 비대면 수업 방식인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가 상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2학기 역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213개 대학의 온라인 강의 비중은 전체 강의의 0.92%에 불과 했으며, 온라인 강의 비중이 1% 이상인 대학은 6개에 불과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 많은 대학들이 서둘러 온라인 강의 개설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온라인 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자 및 학습자 모두 초기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었다. 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식은 대체로 교수자가 학교 웹사이트에 강의 동영상상을 올려 학습자들이 시청하는 방법과 웹엑스(WebEx) 또는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원격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온라인에 접속해 수업을 듣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불만은 ‘등록금 반환 투쟁’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또한 높아졌다.

2020년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대학 원격수업 규제가 2021년 1학기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교육부는 그동안 원격수업 개설과 이수학점 비율을 전체 학점의 20%로 상한선을 뒀는데 이제부터는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대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또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 관련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현재도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 및 해외 연구 논문에

서도 온라인 수업을 이론 수업과 실습수업을 나누어 살펴본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만족도 연구는 기존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향후 온라인 교수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론수업 및 실습수업을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통해 수강했을 때의 차이점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문헌연구

2.1 온라인 수업의 개념과 장단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언택트 서비스(untact service)가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교육분야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 주목을 끌었다. 교육분야에서도 초·중·고 및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수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은 ‘사이버 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전통적인 대면수업 방식을 벗어나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형태로 고등교육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온라인 수업이란 ‘방송·통신수업의 한 형태로서, 면대면 출석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가 지도하는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수업체제’로 정의된다[1]. 일반적으로, 전체 수업의 70%~80% 정도를 온라인으로 가르칠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인정되기도 한다[2].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 없이 편리하게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편리성을 꼽을 수 있다[3]. 학생들의 입장에서 온라인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어 교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상생활과 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4]. 온라인 수업은 강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수업 자료를 본인의 노트북 등에 다운로드 받아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은 대규모 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있는 강의를 수강하기 위한 불필요한 노력도 들이지 않아도 된다[5].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직접 강의를 하지 않고 편리하게 반복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3].

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동영상 강의의 반복, 일부 학생들의 대리시험 등과 같은 부정행위, 강의를 제대로 들지 않고 접속한 것으로 출석을 대신한다거나 동영상 강

의를 재생시켜 놓은 채 다른 학습 외의 일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의 진도를 나가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학생들이 그룹으로 시험을 치르는 부정행위, 또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대리시험을 치르는 사례들이 발생해 학교 당국에서는 성적을 무효화시키는 등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6]. 그 외에도,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들간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7]. 온라인 수업에서는 과제 평가, 게시판 답 글이라는 형식에서의 소극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된 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많은 대학들이 시스코 웹엑스(Cisoco WebEx), 줌(Zoom), 구글 미트(Google Meet) 등과 같은 원격 교육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화상수업을 진행하며, 실시간 토론 및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8]. 원격교육 플랫폼들마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교수자들은 강의자료를 학습자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채팅 기능, 출석체크 기능 등을 제공한다. 최대 100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해 대규모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이동하면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카메라를 통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수업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 상황에 따른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

2.2 온라인 수업 학습자 만족도 요인연구

온라인 수업 학습자 만족도 관련 연구는 현재에도 국내 및 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국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 학습유형별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동영상상을 통한 학습 보다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수업을 선호하고,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학습에도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9]. 이은주·박인우는 연구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로 컴퓨터 자기효능감(computer self-efficacy)과 교수실재감(teaching presence)을 제시했다[10].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컴퓨터, 인터넷 등 매체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자기평가

와 자신감을 일컫는 것으로 매체 조작능력, 과제 및 업무달성을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인지로 정의 될 수 있으며[11,12], 교수실재감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학습 성과를 위한 인지적, 사회적 과정의 설계, 촉진, 지도를 통해 학습환경과 활동을 관리하고 조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13].

연구결과,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습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수업 만족도를 느끼는데 중요한 변인이 밝혀졌으며, 교수실재감 또한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수업 만족도를 이끌어 내는 변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10]. 또 다른 연구에서 권성연은 교수실재감은 학습접근, 만족도, 효과성 인식을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임을 밝혀내기도 했다[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구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라는 요인이 학습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학구적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학습과제를 기대되는 수준에 맞게 성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려는 학습자의 지각된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4]. 김태웅은 온라인 토론 수업에서 학구적 자기효능감과 토론 참여도가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15].

해외 연구에서도 국내 연구와 비슷한 연구결과들이 있었으며, 온라인 학습자 만족도에 미치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국내 연구에서처럼 학구적 자기효능감은 온라인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16].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인 인터넷 자기효능감(Internet self-efficacy)와 웹 자기효능감(Web self-efficacy)도 온라인 수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18]. 한 연구에서는 온라인 학습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온라인 수업 시스템적 요인과 인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17]. 시스템적 요인으로 온라인 수업 시스템의 질, 인적 요인으로 온라인 수업의 안정감, 자기주도학습 능력, 인지된 웹 자기효능감 등이 있었으며, 이 언급된 요인들 모두 온라인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학습자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온라인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18-20].

3. 연구문제 및 방법론

3.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실시간 원격 수업에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 이유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실시간 원격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 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요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실시간 원격 수업의 개선 방안, 즉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계속해서 수강할 예정인가?

3.2 연구방법

웹버타이징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수강중인 대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만족 또는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이론 및 실습 수업에 있어 대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만족 또는 불만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밝히고자 한다. 온라인 실시간 수업 관련 대학생들의 만족도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21, 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ble 1과 같이 현재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수강중인 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온라인 수업은 대학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인터뷰는 질문, 질문 방법 등의 표준화를 통해 방법상의 편차들을 제거하거나 통제하고자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약 40분에서 60분 정도 진행되었다. 인터뷰 시작 전에 참여자들의 허락을 받아 인터뷰 내용을 녹음했으며, 각 인터뷰가 끝난 후에 녹음 내용을 전사하였다. 인터뷰는 2020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질적 연구방법은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방법에서 주로 쓰이는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는 한다. 하지만, 링컨과 구바는 연구대상자 검증(member check)을 질적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21].

본 연구는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인터뷰 결과를 점검하게 하였으며, 그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외부인을 통한 검사(outside audit)를 위해 기존에 온라인 수업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학자들을 통해 논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인 동료그룹의 상호확인 과정을 거쳤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depth Interview Participants

Category	Years in School	Age	Gender
A	1	20	Male
B	1	21	Female
C	1	20	Female
D	2	22	Female
E	2	25	Male
F	2	24	Male
G	3	22	Male
H	3	23	Female
I	3	24	Male
J	4	23	Female
K	4	23	Female
L	4	25	Male

4. 심층 인터뷰 결과

4.1 실시간 온라인 수업 만족 또는 불만족 원인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실시간 온라인 수업 만족 또는 불만족 요인들은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으로 요약된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이 언급한 온라인 수업의 장점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어 편리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과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을 이동하거나 학교에 나오는 번거로움과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상황적 장점도 언급되었다. 반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불만족 요인들이자 단점들은 시스템의 불안정성, 학생과 교수와의 상호 인터랙션의 부족, 수업 집중력에 방해,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자로 인한 수업의 질적 저하, 시험의 공정성 유지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A (1학년, 20세, 남성)

저는 대체로 온라인 수업에 만족합니다. 온라인 수업이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오프라인 보다는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껴요. 또 이동시간이나 준비 시간 등을 줄일 수 있어서 잠을 충분히 잘 수도 있어.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르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건데요. 온라인에서는 교수님이 제가 안보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좀 나태해 지는 것 같습니다.

B (1학년, 21세 여성)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강의를 들을 때 장

소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출석체크인데요. 인터넷이 안 될 때 출석 체크가 힘들고, 이것을 교수님께 인증하는 절차도 번거롭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대면수업에 비해 교수님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피드백이 대면수업에 비해 느리고, 교수님과의 인터랙션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C (1학년, 20세, 여성)

온라인 수업은 자유로워서 만족해요. 제일 큰 장점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수업 자유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는 등교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노트북만 있으면 카페나 도서관 등 집이 아닌 공간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편의성 부분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집중을 하기 힘들어요. 교수님과의 인터랙션이 부족하다 보니 질문하기도 쉽지 않고요. 온라인 수업에서 제가 보이지 않으니깐 저 역시 딴짓을 한다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연결 상태로 음절이나 화면의 문제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D (2학년, 22세, 여성)

학교에 직접 등교해서 듣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효율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편한 공간에서 혼자 들으니 학습 분위기 형성이 어렵고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공간적인 한계로 소통이 힘들고,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E (2학년, 25세, 남성)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는 대면수업에 비해서 피로도가 적고 편해요. 하지만, 시험의 공정성이나 평가를 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고, 인터넷이 안 되거나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수업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교수님들께서 웹엑스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수업이 중간 중간 멈출 때가 있어서 수업 집중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F (2학년, 24세, 남성)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없다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학교 근처에서 하숙이 나 자취하지 않고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절약 된다고 봅니다. 이동 시간이 없어지면서 개인 시간이 늘어서 학업에 더 충실할 수 있어서 좋아요.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교수님과의 인터랙션이 안돼

서 궁금한 점이 있어도 선뜻 질문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채팅을 통해 문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비대면 수업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그 수업의 만족스럽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H (3학년, 23세, 여성)

전체적으로 만족을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대면의 문제는 학생의 적극성과 이해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교수님께서 학생을 보지 못하시니까 이해도의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학생들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의 이해도 부분은 학생의 적극성이 낮을수록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파악하기 힘들어 집니다. 결국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카메라를 켜는 때 딴 짓을 못하니깐 강제일지라도 집중도는 높아지고 많이 배웠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결국에는 집중을 해 더 배워간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I (3학년, 24세, 남성)

대면강의를 할 때는 강의실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강의는 그렇지 않아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랜선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우들을 못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회적 부분에서의 결여가 불만족스럽습니다.

J (4학년, 23세, 여성)

온라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집중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편한 공간에서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힘들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일부 교수님들은 다양한 웹엑스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내용만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 (4학년, 25세, 남성)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이동할 필요 없이 바로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수업을 마치고도 다른 수업에 이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교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이나 피드백을 받기 어렵고, 주변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질문을 하기 힘들고 피드백이나 소통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4.2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한 이론 및 실습수업 만족도 차이 및 그 요인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한 이론 및 실습수업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이론수업이 실습수업 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이론수업을 일방향적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수업 손실을 크게 느끼지 않는 반면, 실습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면 실시간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상호 인터랙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 실습수업은 배우는 내용적인 면에서 질적 저하가 이루어지며, 특히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수업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도 밝혀졌다. 또한, 실습수업은 조별과제와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학생과 교수자, 그리고 학생들 서로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1학년, 20세, 남성)

대면수업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래도 실습 수업이 이론 수업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실습은 온라인 수업임에도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PPT제작등 활동이 많아서 뭔가 더 알찬 느낌이에요.

B (1학년, 21세 여성)

이론수업이 만족도가 더 높아요. 방금 전에 한 말과 이어지는데, 실습수업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실습해야 하는 과제가 생겨요. 교수님과 대면 강의를 했으면 과제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요. 언어 비언어 소통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론수업은 실습수업과 달리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수업자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이론 수업은 대면으로 했을 때와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라 여겼어요. 이 점이 이론수업을 더 만족하는 이유예요.

C (1학년, 20세, 여성)

이론 수업이 실습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이론수업은 교수님께서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비대면의 패널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반대로 실습수업은 학생-학생 그리고 교수-학생의 대면에서만 할 수 있는 인터랙션이 있어요.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게 안되니까. 그래서 온라인 패널티가 적은 이론수업이 실습수업보다 더 만족스러워요.

D (2학년, 22세, 여성)

이론수업은 일방적인 학습이기 때문에 크게 손실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실습수업은 수업마다의 환경이 다 달라서 직접 의견을 내고 하는 경우에는 웹엑스(WebEx) 원격 강의 시스템의 한계가 있어서 만족도가 더 떨어지고, 교수님 마다 역량차이도 존재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E (2학년, 25세, 남성)

저는 온라인 수업이 이론수업이나 실습수업이냐에 따라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전공수업을 보면 이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시간 원격 강의를 통한 이론 수업도 환경적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인도 많아서 집중하기 힘들지만, 실습수업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의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고 참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F (2학년, 24세, 남성)

이론수업에 오히려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도 싶고요. 실습수업의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습수업을 하면 저희가 발표를 하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대면수업으로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발표를 보면서 실시간 반응에 따라 좀더 활발하게 놓치는 부분이 없이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상호작용 없이 그리고 인터랙션 없이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G (3학년, 22세, 여성)

이론수업의 경우 일방향적 강의학습이 주를 이루어서 수업에 대한 손실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실습수업의 경우 비대면에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별 과제를 진행할 때나 교수님의 피드백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불가능해서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습니다.

H (3학년, 23세, 여성)

실습수업의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교수님과 미팅의 경우 교수님과 학생의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 보니까 자유로운 미팅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실습수업의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대면에서의 미팅은 무조건 대면미팅이라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니다. 하지만 비대면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팅은 아주 편했습니다.

I (3학년, 24세, 남성)

이론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이론은 실습

에 기반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론수업은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서적이거나 보충을 통해 터득이 가능합니다. 실습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들을 만나서 대해야 하는 부분도 많고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을 해야 하는데 원격강의에서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놓치는 부분들도 많고 적극적인 피드백이 어렵습니다. 즉 이론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개인적 보충을 통해 이론의 학습은 가능하나 실습은 비대면 일 경우 제한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K (4학년, 23세, 여성)

이론 수업은 설명하는 내용을 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없다. 하지만, 실습수업인 경우 피드백,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대면수업보다 질이 떨어진다. 제 생각에는 실습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L (4학년, 25세, 여성)

이론수업은 일반 인터넷 강의와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큰 손실을 느끼기 힘들어요. 그런데 실습수업은 피드백 위주 커뮤니케이션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캡과 마이크로 대화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비언어적 신호가 없어서 순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움이 있고, 두세 가지 질문할 것이 있어도 한 가지 질문만 하게 되고, 서로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4.3 실시간 온라인 수업 만족도 제고 방안

온라인 수업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은 수업 운영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카메라를 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럼으로써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언급했다. 교수자들의 온라인 수업 시스템에 대한 익숙도 역시 온라인 수업 만족도 제고 방안으로 꼽혔다.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은 그 외에도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 즉 교수자와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인터랙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온라인 수업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일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1학년, 20세, 남성)

전원 카메라를 켜야 한다고 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였는데 캡을 켜면 교수님이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동적이라도 집중력이 올라가요. 그럼 만족도는 올라갈까?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수업은 자투리 시간이 많아 제 개인

적인 시간으로 쓸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지는 않는데, 있다면 만족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또 웹엑스를 통해 조모임을 늘린다면 조원들에게 피해주기 싫어 더 집중 할 거예요. 그렇게 수동적이라도 집중을 한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B (1학년, 21세, 여성)

출석체크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님들마다 출석체크의 방법이다 다르세요. 직접 호명하시는 교수님, 전자출결하시는 교수님, 늦게 출석체크 하시는 교수님 등 출석하는 방법을 단일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 (1학년, 20세, 여성)

저는 대학에 진학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때문에 온라인 강의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고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1학기를 다닐 때는 학생과 교수님 모두 온라인 시험과 온라인 출결은 처음이라 하향평준화 된 느낌이었어요. 성적에 변별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교수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신 덕에 불만족하는 부분은 없고 만족하면서 강의 듣고 있어요.

D (2학년, 22세, 여성)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이 좀더 기기조작, 인터넷, 시스템 환경에 대한 적응,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들 중에는 웹엑스를 잘 사용하는 교수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수님도 계세요.

E (2학년, 25세, 남성)

학교 자체적으로 수업 운영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수업에서 카메라를 켜는 건가 교수님과 학생들이 따를 수 있는 어떠한 합의점들이 있으면 합니다. 현재 저는 웹엑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좀 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수업의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수업 구조 및 진행에 대한 확실한 오리엔테이션이 학기 초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식이 아닌, 처음부터 온라인 원격수업에 맞는 수업 구조를 확실히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F (2학년, 24세, 남성)

시험의 방식도 통일했으면 합니다. 어떤 수업에서는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시험도 있었는데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한다든가 형식을 통일한다든가 하는 방식의 학교 차원에서의 확실한 가이드라인 있으면 합니다.

H (3학년, 23세, 여성)

교수님이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전원 카메라를 켜

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조모임을 시켜서, 조끼리 모여 토론하고 발표하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교수님이 이론만 시키면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모임으로 모이게 되면 강제성이 동반 돼 집중도가 높아지는데 수업을 안 듣는 것보다는 조원들끼리 수업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하니 이해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수업의 만족도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J (4학년, 23세, 여성)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내가 수업의 한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 (4학년, 23세, 여성)

제가 들기론 다른 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에 캡을 무조건 켜고 들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캡을 켜고 듣는다면 수업에 집중도가 올라가고 만족도도 높아질 겁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참여형 수업이 만족도가 높았는데, 교수님들이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L (4학년, 25세, 남성)

교수님 차원에서 스스로 원격수업을 부담스러워하고 의식해서 수업의 질이 하락하는 수업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수강하는 입장에서 학습의욕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교수님들의 프로그램 사용 능력과 원격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4.4 실시간 온라인 수업 향후 수강 의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 재수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특히, 대학교 첫학기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새내기인 1학년 학생들은 대면수업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으며, 다른 학년의 학생들 역시 대학생활은 단지 수업을 듣는 장소가 아닌, 수업을 통해 교우 관계를 넓히고, 선후배 및 교수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온라인 수업에 긍정적인 참여자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시간적 효율성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재수강의 의지를 피력했다.

A (1학년, 20세, 남성)

온라인강의를 계속 듣고 싶지 않아요. 앞에서 말했듯이 집중력 문제 때문이에요. 수업의 질이 오프라인보다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1학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B (1학년, 21세, 여성)

저는 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것 같아요. 일단 수업 집중도가 달라요. 더 높아요. 수업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프라인은 주변 사람에 의해 자극을 더 받기 때문에 혼자 있어 나태해지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는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싶어요. 더불어 학교에서 동기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C (1학년, 20세, 여성)

온라인 강의 더는 안 들을 것 같아요. 등록금을 납부하는데 있어 강의실, 기자재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비대면 강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어요. 또 교수님과 학생은 대면을 통한 소통이 학생들 입장에서 배움의 질을 더 높여 줄 것 같아요.

D (2학년, 22세, 여성)

온라인 수업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요. 온라인 수업은 대면강의 보다 더 나은 점이 없고,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F (2학년, 24세, 남성)

저는 절대로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을 겁니다. 대학 생활이 공부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선후배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강의에서는 인간관계가 단절된다고 생각합니다.

G (3학년, 22세, 남성)

저는 나중에 온라인 수업을 다시 수강할 생각이 있습니다. 직접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경험해보니 대면강의에 비해 시간적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H (3학년, 23세, 여성)

둘 다 괜찮은데 할 수 있으면 대면수업이 더 좋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일부러 들을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강의를 만족한다고 해도 캡이 없고 조별과제가 없어도 대면수업으로 충분히 집중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대면수업이 훨씬 더 많이 배우는 느낌이 드니까요. 실습 수업은 당연히 대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미팅은 굳이 대면이 아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팅은 온라인 미팅이 좋습니다.

I (3학년, 24세, 남성)

저는 대면강의를 선택할 것입니다. 사이버 강의도 잘 되어있지만 아직까지 경험상 직접 대면과 소통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집중도 잘되

고 집에서 들으면 나태해지고 침대에 드러눕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대면수업의 경우 교수님께서 앞에 계시는 필기도 하고 집중도 할 수 있고 쉬는 시간의 의미가 더 커져서 좋았습니다.

K (4학년, 23세, 여성)

저는 향후 온라인 수업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대면강의가 집중이 잘되고, 부가적으로 학교생활에서 얻는 것들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대면강의만 수강하고 싶습니다.

L (4학년, 25세, 남성)

저는 온라인 원격 수업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듣는 것은 등록금에 비해 너무 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업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납부하는 등록금에 비해 학교 시설 이용이나 다른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봅니다.

Table 2. Summary of In-depth Interview

Category	Contents
Reasons for Satisfaction or Dissatisfaction with Synchronous Online Learning	Reasons for Satisfaction - lack of dependence on the time and place, no need to travel, cost effective, low chance for contracting Corona Virus Reasons for Dissatisfaction - unstable system, limited interaction between instructors and students, less attentiveness, impossibility of instant feedback, difficulty of securing fair exams.
Differences between Theory-based and Practice-based Learning	Theory-based learning has higher satisfaction than practice-based learning when it comes to synchronous online learning.
Method for Increasing Satisfaction with Synchronous Online Learning	Providing clear guidelines for synchronous online learning Instructors' familiarity with system Securing fairness for exam taking
Intention to Take Synchronous Online Learning	Less likely to take synchronous online learning, but time efficiency i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aking synchronous online learning in the future.

5. 토의

기존 문헌연구에서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 없이 편리하게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편리성이 있었으며[3].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은 일상생활과 학습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4].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기존 문헌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 역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시간 및 공간의 제한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편리성과 학습의 효율성을 들었다. 그 외에도, 수업을 듣기 위한 이동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 절약도 큰 장점으로 꼽혔다. 특히, 학교 기숙사, 하숙, 또는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 할 수 있어 비용 절약적인 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적 측면을 고려해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본 연구결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단점은 시스템의 불안정성, 학생과 교수자의 상호 인터랙션 부족, 수업 집중력에 방해,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불가능, 수업의 질적 저하, 시험의 공정성 유지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기존 문헌연구에서도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간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7], 온라인 대리시험 및 부정행위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의 문제점 역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단점으로 언급되었다[6]. 앞서 언급된 학습자간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자와의 인터랙션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교수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들을 익혀 수업 시간에 학생들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는 소모임방을 개설한다거나 실시간 온라인 서베이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통한 상호 인터랙션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에서 수업은 일반적으로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수강하는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의 만족도 차이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했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론수업에 더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론수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수자와의 상호 인터랙션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수업의 질적인 면에서 대면수업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광고홍보' 수업의 특성상 실습수업은 컴퓨터 프로그램들 (디자인, 영상 등)을 직접 교수자가 시연하거나, 통계프로그램 등을 설명해야하기 때문에 실시간 피드백이 중요한 수업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실습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학습의 질적 저하가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그 밖에도, 실습수업은 조별과제와 협업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시스템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때는 실습수업 보다는 이론수업이 좀더 적합한 형태의 수업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2020년 1학기부터 온라인 수업을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많은 교육기관들이 온라인 교육 시스템

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초기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었다. 본 연구 결과,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만족도 제고 방안으로 수업 운영에 대한 확실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수업들에서 특별한 가이드라인 없이 수업 마다 또는 교수자 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출석 체크 방법, 온라인 시험, 수업 중 카메라 켜기 등과 이슈들에 학생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폼 사용, 교수자들의 온라인 수업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 및 숙달 등도 실시간 온라인 수업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자들과 교수자 모두 카메라를 켜고 수업하는 것이 상호 커뮤니케이션 및 인터랙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 향후 수강 의도에 있어서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 보다는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입학과 함께 대학 캠퍼스 생활을 즐기지도 못한 채 집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했던 1학년 신입생들에게는 더욱 대면수업의 간절함이 인터뷰 내내 베어 있었다. 다른 학년의 연구 참여자들 역시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행위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데 그치고 않고, 대학 수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교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첫 단계를 준비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대학들은 코로나 이후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시장에 맞춰 온라인 수업을 대학의 성장 동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문헌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특히 자기 조절 학습 (self-regulated learning) 능력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8,23]. 대면수업과 비교해 볼 때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의지와 태도가 학습 목표를 성취하고, 더 나아가 수업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자들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자기 조절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조절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질적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REFERENCES

- [1] Jung, K. H., Ahn, S. H. & No, J. M. (2012). Research and analysis for the formulation of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digital textbook. *Keris Report RM* 2012-2133.
- [2] Bach, S., Haynes, P., & Smith, J. L. (2006). Online learning an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McGraw-Hill Education* (UK).
- [3] Lee, E. J. (2020). A Study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Convenience in Online Cours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6(3), 341-362.
- [4] Welker, J., & Berardino, L. (2005). Blended learning: Understanding the middle ground between traditional classroom and fully online instruc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Systems*, 34(1), 33-55.
- [5] Hamann, K., Pollock, P. H., & Wilson, B. M. (2012). Assessing student perceptions of the benefits of discussions in small-group, large-class, and online learning contexts. *College Teaching*, 60(2), 65-75.
- [6] Kim, C. Y. (2020). Cheating in online learning again, *YonHap News*.
- [7] Land, S. M., Hannafin, M. J., & Oliver, K. (2000). Student-centered learning environments. *Theoretical foundations of learning environments*, 1-23.
- [8] Choi, J. S., Kwon, M. K., & Choi, E. K. (2020). A Study on the Instructor Perceptions and Satisfaction levels of Real-time Online Classes: Focusing on the case of Korean language program at D University,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81(6), 135-168.
- [9] Kim, K. A., Kim, J. S., & Ahn, Y. J. (2020). An Analysis of Learne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Preferred Class Type in the Online Clas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28(2), 595-596.
- [10] Lee, E. J. & Park, I. W. (2012). Identifying Predictability of Computer Self-Efficacy, Teaching Presence and Learner Participation on Learner Satisfaction in Online Realtime Instruction,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0(3), 195-219.
- [11] Kim, S. W., & Oh, S. W. (2011). A Study on the Efficiency Analysis of the Training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the Unemployed in Korea.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4(1), 23-47.
- [12] Compeau, D. R., & Higgins, C. A. (1995). Computer self-efficacy: Development of a measure and initial test. *MIS quarterly*, 189-211.

- [13] Kwon, S. Y. (2011).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teaching presence, learning approaches, learners' perception of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27(3), 535-560.
- [14] Schunk, D. H. (1991).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6(3-4), 207-231.
- [15] Kim, T. W. (2010). The Effects of Feedback Patterns by Instructor to the Discussion Participation Levels and Satisfaction Levels in the Online Discussion Environment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3(6), 24-32.
- [16] Jan, S. K. (2015).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computer self-efficacy, prior experience, and satisfaction with online learning.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29(1), 30-40.
- [17] Alshare, K. A., Freeze, R. D., Lane, P. L., & Wen, H. J. (2011). The impacts of system and human factors on online learning systems use and learner satisfaction. *Decision Sciences Journal of Innovative Education*, 9(3), 437-461.
- [18] Kuo, Y. C., Walker, A. E., Schroder, K. E., & Belland, B. R. (2014). Interaction, Internet self-efficacy, and self-regulated learning as predictors of student satisfaction in online education courses.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20, 35-50.
- [19] Horzum, M. B. (2017). Interaction, structure, social presence, and satisfaction in online learning. *Eurasia Journal of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11(3), 505-512.
- [20] Eom, S. B., & Ashill, N. (2016). The determinants of students' perceived learning outcomes and satisfaction in university online education: An update. *Decision Sciences Journal of Innovative Education*, 14(2), 185-215
- [21] Lincoln, Y.S., & Guba, E.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22] Cres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 Sage.
- [23] Joo, Y. J., Joung, S., & Kim, J. (2014).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regulated learning, learning flow, satisfaction, and learning persistence in cyber universities. *Interactive Learning Environments*, 22(6), 752-770.

엄 남 현(Namhyun Um)

[정회원]



- 1999년 12월 : 미국 워싱턴 주립대 커뮤니케이션 (석사)
- 2011년 8월 : 미국 텍사스 주립대 광고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뉴미디어, 정치광고, 광고

리터러시

· E-Mail : goldmund@hongik.ac.kr